

시론

무등산에 추락한 드론을 찾아라



진호림 (주)리얼프로텍 대표이사

무등산을 상징하는 말은 많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산'에 공감한다. 무등산은 위안과 용기를 주고, 많은 영감을 가져다준다. 또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방송일을 하는 나는 촬영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

전에 근무하던 방송국에서는 무등산 정상에서 중무식을 했다. 산상 중무식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사를 거르지 않았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과정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16일, 무등산의 입석대와 서석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제46호 무등산 주상절리대다. 20년 전 일이다. 그해 마지막 날 산행에서 나는 문득, '무등산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천연기념물은 학술적으로나 관광적으로 가치가 높아야 한다고 했는데, 흔하게 바라보고, 밟고 오르던 돌무더기가 천연기념물이라니? 가까이 있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에는 천연기념물이 하나도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

어지던 이 시기는 중앙정부와 말이 통했고, 지역의 요구 사항도 잘 들어줬다. 최초라는 점과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며 '혹시나'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급증은 풀렸다. 무등산 일대의 지질조사가 오래전부터 이뤄졌고, 입석대와 서석대, 규봉 등의 주상절리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생대 백악기 일대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했다. 이때 흘러나온 용암이 오랜 세월 풍화와 냉각 수축을 반복하며 지금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특히 입석대와 서석대의 돌기 등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주상절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주상절리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5각 또는 6각형의 절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암질을 분석해 세 차례의 화산활동을 밝혀냈고, 절리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암석들이 산 곳곳에 널려 있음을 확인했다.

또 국내의 유명 주상절리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주도 지상개와 북아일랜드 자이언트코즈웨이 등을 취재했다. 결과는 SD, HD, 3D 다규멘터리로 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냈다.

자이언트코즈웨이는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4만여 개의 주상절리가 장관이다. 북아일랜드 내셔널트러스트가 훼손 위기의 이곳 주상절리를 사들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촬영조건으로 5만 파운드의 보험 가입과 시간당 100파운드의 비용을 요구해 당황했다.

'가장 효과적인 보존 방법은 대중에게 알려

지지 않는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에 할 말을 잃었다. 인간의 호기심과 관심이 오히려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 '영구보존'이라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취지를 실감했다.

3D 촬영은 특성상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다. 크레인의 암이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 3D 리그와 카메라, 발전기, 대형 TV 등은 그 모양이 손으로 들고 산길을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장비 운반에 힘이 좋은 역도선수들이 참여했으니 입석대에서 모두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 버렸다. 이대로라면 서석대 등 추가 촬영은 불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터미널 앞에서 일하던 지게꾼들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운반하고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주 또 한차례 무등산 촬영에 나섰다. XR 다규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다. 거대한 돌기둥을 촬영하고 스캔하는 데 드론과 라이더를 이용했다. 이번에는 입석대 너머를 촬영하던 드론과의 통신이 끊겨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넓은 산속에서, 손바닥만 한 드론을 어떻게 찾지? 촬영팀이 흩어져 입석대와 서석대 사이 숲속을 뒤졌으나 허사였다.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마지막 통신한 위치를 찾아냈고, 그 좌표를 카카오톡에 입력했다.

좌표의 위치는 100m 이내.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30여 분을 추적한 끝에 나무에 걸려있는 드론을 발견했다. 소풍에서 보물을 찾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봤다' 보다 더 큰 외침이 무등산에 울려 퍼졌다.

社說

세월호 진상규명 아직도 미궁...열번째 잔인한 봄

열번째 봄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속속 열리고 있다.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다.

광주추진위원회가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마련한 시민 분향소에는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직접 운영하는 세월호 기억 무드등·촛불·안전팔찌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안전 사회를 기원하는 전시·공연으로 다양하게 꾸러졌다. 여수 이순신광장·목포 평화광장·순천 조례호수 공원에서도 시민단체 주관으로 문화제·음악회가 진행됐다.

잔인했던 그날의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최초 원인에 대한 해답조차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여전히 미궁이다. 세월호가 왜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는지 밝혀야 한다.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깨야 한다. 침몰한 뒤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다. 부른 마음을 안고 떠난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들과

딸을 유가족들은 가슴에 묻어야 했다. 괜한 죄스러움으로 생존자의 아픔도 그대로다. 무심한 세상과 단절된 뒤 숨어 지내는 피해자도 많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핏빛 외침은 서울 이태원 압사,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그렇듯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 아이들과 약속한 유족을 더욱 무겁게 짊어준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 앞에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다. 사후 복구가 중요하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재난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지역교실 외부에는 하나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다. 희생자는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꼭 이뤄져야 한다. 2017년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는 곳곳이 구겨진 종잇장처럼 휘었다.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선거사범 수사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4·10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10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시일도 촉박하다. 6개월 공소시효에 맞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입건한 대상자는 1천명을 훌쩍 넘어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일선 관서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1천681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송치되고 167명은 불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9%로 가장 많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관여,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범죄의 비중은 59%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제22대 총선 관련 고소·고발과 인지 수사 등을 통해 119건 147명을 적발했다. 광주는 50건 68명을 적발·인지하거나 신고받아 수사 중이다. 15건 16명을 불송치 결정 또는 타 경찰청 이첩 등으로 종결하고, 35건 5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은 69건 10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해

이 중 8건 10명을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61건 94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광주 8개 선거구 당선인 중 5명이 본인과 주변인 문제로 인해 검정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전남에선 10명의 당선인 가운데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울초부터 전담반을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던 검찰은 밀려드는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도 4개월 동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공조해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한다.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만 돈을 받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등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여전히 불법·탐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5대 범죄 중 폭력을 제하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더한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뒤 상응하는 조치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치칼럼

'세큰대', 마을의 자기 경험을 기록하다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을 줄여 '세큰대'라고 한다. 최근 한 자치구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자기 경험을 논문 형태로 집필하는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개월 교육과정에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기도 하지만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일정한 형식에 맞춰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더욱 더 가치 있는 일은 자기 경험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는 일이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된 마을 전문가들은 마을 현장에서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속해서 마을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전문가로서 양성된다고 했다.

기존의 방식은 행정이나 전문가가 마을만들기 기록을 담당해 왔다. 마을 주민들은 참여에 머물러 있어 기록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경험을 생동감 있게 담아 내지 못하고 행정이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포장돼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대 주민으로서 직접 도움을 주

고 행정은 순수하게 지원에만 그치게 됨으로써 마을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교육과정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의 가치는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일정한 형태로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록은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의 발견, 경험, 지식이 기록되면 그것을 다음 세대가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은 역사적 사건과 사람들의 행동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 사건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수집, 보존, 정리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아카이빙이라고 한다.

그동안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면서 발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는 발전이 정체됐다는 느낌이 든다. 마을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노력하고 기여하고 있었지만 성숙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토머스 쿤은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전 패러다임을 대체하면서 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새

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감하게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행정은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마을의 주민들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주민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을 전문가를 양성해 마을 현장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0세 가까운 한 마을 활동가는 마을에서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아이들 육아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취업 단절 여성·장애인·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업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진화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또한 부업센터, 반찬가게, 북카페 등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 소중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은 여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일자리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마을 속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층 혁신적으로 진화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마을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이 주인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경험이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독자투고

우리사회의 '최대의 적' 마약 반드시 근절돼야

마약은 과거 일부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마약은 일상 속 불법 거래 및 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사회의 '최대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주문하면서 검경이 강력 수사에 나섰다. 마약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은 2016년부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1만8천36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경우 2천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4명)보다 32.4% 늘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의 가장 큰 특징은 20-30대 연령층이 많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전국 마약사범 중 56.8% (9천173명)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은 29.6% (948명 중 281명)였으나, 지난해에는 절반을 넘어선 58.3% (553명 중 308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40대 이상은 줄어가고 있는 반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접한 젊은이가 크게 늘었고, 이들이 귀국한 뒤에도 마약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온라인 등 마약 접근성이 한층 수월해진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약 청정지대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구비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 정치, 사회, 모든 국민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근절을 서로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겠다.

(최휘호·함평경찰서 월여파출소장)

아침물어는 詩

풀잎의 그림자

박정어



선릉의 안쪽 담벼락에 사월의 그림자를 그리려다 풀잎 알갱이에 색을 그리고 봄의 손뭉치 쓰러지며 풀잎 색을 칠한다 구부렀다 서서 구부렀다 앉아서 온종일 풀잎 그림자를 그린다 작은 샘물에 그리움을 풀어놓고 압축해온 봄의 흐린 눈빛도 익숙해진 풀잎의 시간으로 풀어놓는다

(시집 '목성의 춤', 포에트리, 2024)

[시의 눈]

안채 뒤 담벼락에 뒷밭이 있습니다. 풀잎이 벽에다 그림자놀이를 합니다. 햇빛받은 사월의 오추이지요. 한여름마감을 땀니다. 참 따라운 아이도 있고요. 아이는 눈이 부신 듯 찡그리고 담벽의 풀잎 그림자를 쳐다봅니다. 흔들리는 풀잎은 그를 달려줄 모빌처럼 보이네요. 아이는 구부렀다가 쪼그려 앉았다가 결국 서서 움직이는 그림자로 다가갑니다. 색깔이라도 하려는 듯 당당한 손을 들고 가까이 뒤통기릅니다. 한데 그림자 모빌은 이리저리 미하는군요. 발 아래 개미 한 마리 기어갑니다. 그림자를 따라 작은 조각을 제집으로 옮기고 있네요. 아이는 그림자를 보라, 개미를 보라, 바쁜 요것거리에 빠집니다. 봄바람이 그림자와 아이와 개미를 놀리는 듯 합니다. 이때 엄마와 눈이 마주칩니다. 풀잎 그림자에 다가가는 아이 따라 호미를 더 바빠 놀리지요. 하면 그림자에도 색깔해아겠지요. 엄마는 풀물 든 손을 열린 담벽에 쓱쓱 문지릅니다. 기다렸다는 듯 푸른 그림풀이 돋습니다. 박정어 시인은 서울에서 나 2009년 경남일보 신춘문예를 거쳐 시집 '우후가 증발한다'(2012), '여왕의 거울'(2017) 등을 냈고, 포에트리 시집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가 타자를 먹고 자신의 생장을 도모하다 다시 타자에게 내어주는 그 생의 공진화를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